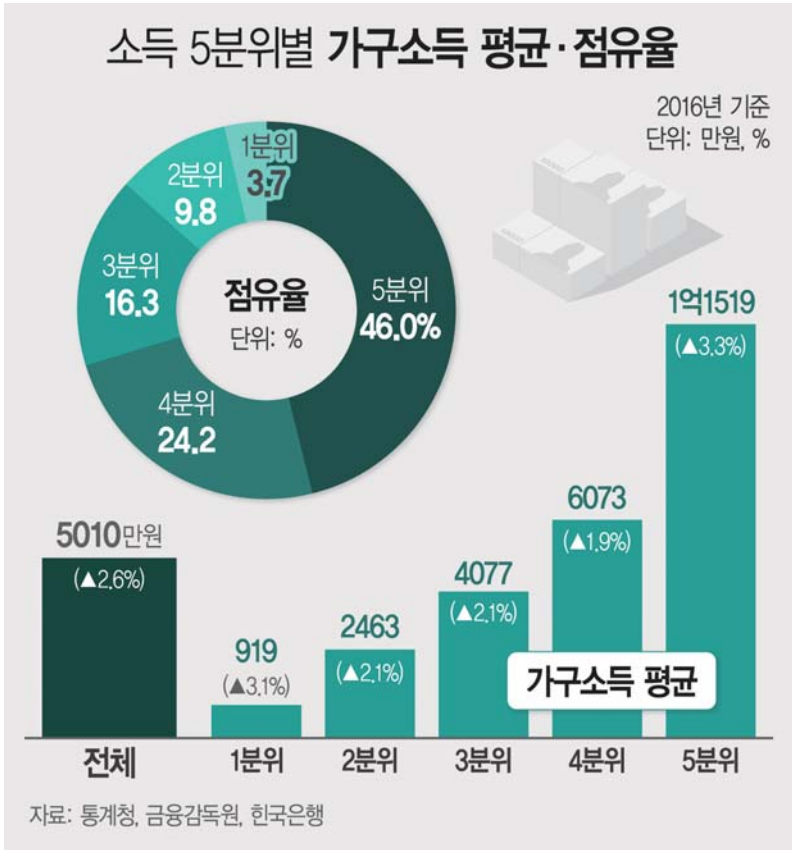


하위20% '年 919만원 vs 상위20% '年 1.1억원'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심화

5분위, 근로소득 7751만원 사업소득 2908만원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1억1519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 가구가 0.3% 증가하며 유일하게 늘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별 가구의 평균

소득은 모든 분야에서 증가했으며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소득 1분위 평균 소득은 919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2분위는 2463만원으로 2.1%, 3분위는 4077만원으로 1.9%, 4분위는 6073만원으로 3.3%로 각각 소득이 늘었다. 소득점유율은 5분위가 전체 가구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46%를 기록하며 0.3% 포인트 늘어난 반면, 4분위는 24.2%로 0.2% 포인트, 3분위는 16.3%로 0.1% 포인트, 2분위는 9.8%로 0.1% 포인트씩 각각 줄었다.

저소득 가구인 1분위의 점유율은 3.7%로 전년도와 차이가 없었다. 소득 1분위에서는 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공적이전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소득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40.6%(373만원), 근로소득이 26.3%(241만원)을 차지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67.3%(7751만원), 사업소득이 25.2%(2908만원)를 차지했다.

뉴스

광주신세계, 희망산타 원정대 발대식 개최

지역소외계층 후원금 전달 등 희망나눔활동 전개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1억 9천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희망산타 원정대'를 발대하는 등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21일에 실시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광주신세계 희망산타 원정대'는 광주신세계가 진행하는 광주지역 5개구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 만들기 & 사랑 나눔 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에게 꿈과 행복을 선사하고, 광주지

순가정 어린이에게는 산타 선물상자를 증정했다.

이웃의 사랑의 밤차, 희망배달차를 통해 광천동 거주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점심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풍성하게 진행했다.

'2017 광주신세계 희망 산타 원정대' 행사에 참여한 광주신세계 전체인 파트너는 "유익 추운 이번 겨울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산타 선물상자를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희망 산타 원정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광주지역대표 기업인 광주신세계가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열어가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최민도 광주신세계 총괄임원은 "광주신세계는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민의 꾸준한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전국 아파트값 오름세 2주연속 '멈춰'...서울은 '확대'

광주 등 대도시 역세권 신축 아파트 매수 문의 이어져

전국 아파트값 오름세가 2주 연속 멈춰섰다. 반면 서울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1일 기준 매매가격은 전주에 이어 보합했다. 서울은 0.18% 상승했다.

기반시설이 양호해 거주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매수 문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조선업 경기 침체 등 지역적 요인과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관망세가 이어졌다.

이번주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0.08% 상승 지방에서는 0.08%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보합했다. 이들 변동률은 전주와 같다.

다만 서울 오름폭은 소폭 확대됐다. 전주(0.17%)보다 0.01%포인트 확대된 0.18%상승했다. 화군이 좋은 지역과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북권(0.12%)은 성동구와 광진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역세권 인근에 직장인 수요가 유입되며 마포구에서는 상승했다. 정비사업 진척과 기업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에서도 올랐다.

강남권(0.23%)은 목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 발표 연기 등으로 양천구 상승세가 둔화되고 겨울철 비수기 영향으로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3주 연속 상승세가 축소됐다.

지방은 전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광주는 북구와 광산구 내 기반시설이 양호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대구와 대전 등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됐다.

전북은 신규 입주물량과 조선업 침체 영향으로 약 1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원은 교통망 개선에도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주요 시도별 매매가격은 광주(0.11%), 대구(0.07%), 전남(0.06%) 등은 상승했다. 세종은 보합한 반면

경남(-0.19%), 경북(-0.16%), 제주(-0.15%), 충북(-0.13%) 등은 하락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3%하락했다.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는 감소했지만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0.08%하락했다.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은 각각 0.04%, 0.03% 상승했다. 경기도는 0.07%하락했다.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겨울 이사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경상과 충청권은 장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와 부산은 국지적인 상승 요인에도 신규주택의 전세공급 증가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세종은 기존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된데다 당분간 행복도시 내 대규모 입주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상승폭이 커졌다.

주요 시도별 전세가격은 세종(0.91%), 대전(0.07%), 전북(0.04%) 등은 올랐다. 경남(-0.14%), 제주(-0.13%), 강원(-0.11%), 경북(-0.10%) 등은 떨어졌다.

구형 아이폰 성능 '뚝'...왜?

애플 "일정기간 후 성능저하 알고리즘 탑재"

아이폰은 몇 해만 사용하면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배터리 충전이 잘 되지 않거나 갑자기 꺼지는 현상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애플이 고객들의 신제품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떨어트리도록 설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이 뚝 떨어지는 이유를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 CNBC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알고리즘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는 최적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이 장착돼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우리의 목표는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종합적인 성능과 함께 최대한의 기기 수명 보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어 "아이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추운 곳에 있거나 배터리 잔량이 적을 경우 최대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기기 보호를 위해 갑작스럽게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6와 아이폰6s 아이폰SE 등이 갑자기 종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공급을 원



활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 업데이트는 아이폰 7에도 적용됐다. 다른 제품에도 추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드딴(Reddit)은 애플이 몇 년 전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뉴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